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 11시 콘서트

2021 SEASON 17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이 음악회는 예술의전당이 기획·제작하였습니다.

\* Seoul Arts Center Pvaroudly Presents.

#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 보험업계 최초 디지털 보험설계사 LIFE MD 런칭
- 생보업계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 AAA 13년 연속 획득
- 금융기업 최초 한화생명 e sports 창단
- 보험업계 최초 핀테크 센터 DREAMPLUS 63 오픈
- 생보업계 최초 태블릿PC 전자서명 시스템 Smart Planner 도입
- 생보업계 최초 베트남 진출 최다 해외 국가 진출
- 한화그룹 편입
- 보험업계 최초 계약자 건강진단 서비스 제도 도입
- 생보업계 최초 FP출신 여성임원 배출
- 생보업계 최초 계약자 이익배당 실시
- 대한민국 랜드마크 63빌딩 아시아 최초·최고층 준공
-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에는 수많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처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보험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고객의 삶 더 가까이에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할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가 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1일, 분할 신설법인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합니다.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 11시 콘서트

SEASON 17

특별한 오전 클래식 음악 나들이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 Jun. 10, 2021 at 11 A.M.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PROGRAM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hu, Jun. 10, 2021 at 11 A.M,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차웅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카르멘) 테너 박지민(돈 호세)  
소프라노 김신혜(미카엘라) 바리톤 이동환(에스카미요)

비제 |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G. Bizet | Opera <Carmen> Highlights

서곡 Prelude

### 제1막 Act I

- 허버네라 - 사랑은 자유로운 새 Habanera : L'amour est un oiseau rebelle / 카르멘
- 내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오 Parle-moi de ma mère / 돈 호세, 미카엘라
- 세기디야 - 세비아 성벽 근처에 Seguidilla : Près des remparts de Séville / 카르멘, 돈 호세

간주곡 Entr'Acte

### 제2막 Act II

- 집사의 노래 - 신나는 트라이앵글 소리는 울리고 Les tringles des sistres tintaient / 카르멘
- 투우사의 노래 - 여러분의 건배에 보답하리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 에스카미요
- 이제 상으로 당신과 춤을 추겠소 Je vais danser en votre honneur / 돈 호세, 카르멘
- 꽃노래 - 그대가 던져준 꽃은 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 돈 호세
- 아니요, 그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Non, tu ne m'aimes pas / 카르멘, 돈 호세

## 휴식 Intermission

### 제3막 Act III

- 여기가 밀수꾼들의 은신처로군... 나는 두렵지 않아요  
C'est des contrebandiers... Je dis que rien ne m'épouvante / 미카엘라
- 내가 에스카미요라요 Je suis Escamillo / 에스카미요, 돈 호세

간주곡 Entr'Acte

### 제4막 Act IV

- 그건 당신! 그래요 나예요! C'est toi! C'est moi! / 카르멘, 돈 호세

프로그램과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ograms and artists are subject to change.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witch off your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before the concert begins.

# ARTIST PROFILE



## 지휘 차웅 Woong Cha, Conductor

브장송 콩쿠르, 말러 콩쿠르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지휘 경연으로 손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동양인 유일, 한국인 최초로 우승(1위없는 2위)한 지휘자 차웅은 유독 지휘 분야의 콩쿠르에서 입상이 저조한 한국 클래식계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10월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개최된 제10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는 총 34개국에서 159명의 지휘자가 참가하여 경연하였으며,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킬 페트렌코 또한 이 콩쿠르의 우승자로 유명하다. 우승 이후 차웅은 이태리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극장과 니콜로 파가니니 극장 등에서 지휘하며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차웅은 일찍이 한국지휘자협회로부터 우수 신예지휘자로 선정되어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2010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개최된 제11회 안토니오 페드로티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는 단 17명만을 초대하는 결선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진출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는 국내에서 서울시향, 수원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경기필하모닉, 과천시향, 부천필하모닉, 성남시향, 전주시향, 청주시향, 코리아콥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고, 국외에서 헝가리 Savaria Symphony Orchestra, MAV Symphony Orchestra, Győr Symphony Orchestra, Israel Chamber Orchestra, 체코 Hradec Kralove Philharmonic Orchestra, 이태리 Filarmonica Toscanini, Arrigo Boito Orchestra, Rome Santa Cecilia Chamber Orchestra 등을 지휘하였다. 2018-2019 시즌 서울시향 퇴근길 토크콘서트 전담 지휘를 비롯하여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을 지휘하였고 서울시립합창단과 대한민국 공식애국가를 음반으로 취입하였다. 또한 2021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의 피날레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초청되어 폐막 공연을 이끌며 대미를 장식했다. 지휘자 차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 ARTIST PROFILE



### 카르멘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Carmen

국내·외에서 벨칸토 메조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는 김정미는 끼지아나 아카데미에서 디플롬을 취득하고 로마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하였다. 2004년 중앙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 입상, 국제콩쿠르 “알카모” 1위, 국제콩쿠르 “라우리 불피” 특별상, “비냐스”, “톨루즈”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 입상을 통해 전문 연주자의 자질을 키워왔으며, 특히 2009년에는 제너바 국제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유럽음악계에 각인시켰다. 또한 2010 Fete de la Musique Festival(스위스), “Open Door. Teatri A teatro 2010”(이탈리아) 주최 오페라 <일 깃털엘로>, <잔니 스끼> 등을 비롯하여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떼>, <세빌리아의 이발사>, <나비부인>, <카르멘> 등에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여성적이고 벨칸토적인 색채의 역할들로 큰 주목을 받아온 김정미는, 동시에 탁월한 연기력과 함께 남성 역할을 맡는, 일명 ‘바자역’ 메조의 역할도 함께 개척하며 한국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피가로의 결혼>의 케루비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오르페오로 영역을 넓혀갔으며, 2014년 국립오페라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테파노 역할로 관객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오페라 및 콘서트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기획 콘서트 오페라 등에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였다. 2018년 서울시향과 테너 이안 보스트리자와 함께한 바흐의 <요한수난곡>,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등 굵직한 연주들과, 2019년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메츠의 아날 대공연장에서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민대 음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돈 호세 테너 박지민 Jimin Park, Tenor, Don Jose

박지민은 서울대학교(강병운 사사)를 졸업,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 이탈리아 Politecnico Internazionale Scientia et Ars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0:1의 경쟁률을 넘어 로얄 코벤트가든 오페라하우스에서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박지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빈 국립오페라극장 특별상, 남미 최고의 콩쿠르 Bidu Sayao 1위, 프랑스의 국제 아트송 콩쿠르에서의 1위와 관객상, 이태리 비요티,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 에스토니아 Klaudia Taev 성악콩쿠르 1위, 그리고 2009년에 스텔라마리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의 Covent Garden 대표로 참가 퍼포먼스 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박지민은

2009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0년 런던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라보엠> 로돌포 역으로 유럽 데뷔를 시작으로 BBC Proms에서 <트로이의 사람들> 이오파스 역으로 프롬스 데뷔, 웨일즈 오페라하우스, 리즈 오페라노스, 프랑스 툴루즈, 이탈리아 베니스 라페니체, 독일 킬극장,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칠레 산티아고극장,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신시네티, 아틀란타, 달라스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Alfredo, Nemorino, Edgardo, Ernesto, Rinucio, Romeo, Des Grieux, Enée 등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라보엠>은 DVD로 제작되어 전세계에 출시되었다. 또한 박지민은 영국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독일의 카이저스라우텐 자브뤼켄 독일 방송교향악단,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 베르디 레퀴엠, 헨델 메시아, 로시니 마테수난곡 협연자로 초청받아 그의 음악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한국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경기필,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명훈, 성시연과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다. 천재 마에스트로 바렌 보임, 오페라 명지휘자인 리처드 보닝, 안토니오 파피노, 뉴욕 메트야니 네제 세갱 등과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과도 함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 미카엘라 소프라노 김신혜 Sin-hye Kim, Soprano, Micaela

김신혜는 현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명으로 꼽히는 쥘리아 가솔라로부터 ‘새 시대를 이끌 소프라노로,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차세대 소프라노다. 그는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피아첸차 G. Nicolini를 졸업하였고, Citta di Magenta 국제콩쿠르 우승을 비롯, Gianni Poggi 국제콩쿠르 2위, Ismaele Voltolini 국제콩쿠르 2위에 올랐으며 Flaviano Labo 국제콩쿠르, Franca Matiucci 국제콩쿠르, Rinaldo Pelizzoni 국제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이탈리아 Municipale 시립극장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주역으로 데뷔한 이후 Busseto Sala di Verdi 극장 초청 독창회, Sarzana Opera Festival, 베르디 서거 200주년 기념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출연해 갈채를 받았다. 제6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일 트리티코>에서 라우렛타 역으로 국내 데뷔 이후, 2019년 예술의전당 기획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류 역으로 호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ART&ARTIST, 솔오페라단, 노블아트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 부산시향, 울산시향, 부천필하모닉, 춘천시향 등 유수 단체와 협연하였고 국내 유수 단체 및 주요 극장에서 다수 오페라의 주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각종 콘서트에서 활약 중이다. 주요 출연 작품으로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돈 죠반니>,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일 트리티코>, <투란도트>,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멘>, <자명고>, <춘향전>, <카사노바 길들이기>, <봄봄>, <운수 좋은날>, <하왕후>, <춘향탈목> 등이 있다.



### 에스카미요 바리톤 이동환 Dong-Hwan Lee, Baritone, Escamillo

바리톤 이동환은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의 오페라(Master과정)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신영옥 성악콩쿠르, 고태국 성악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수리음악콩쿠르, 광주성악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6회 우승, 입상하였으며 유럽으로 무대를 넓혀 세계 오페라 극장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전 세계 극장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베니아미노 질리 국제성악콩쿠르(이탈리아), 소나 왕비 국제성악콩쿠르(노르웨이),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프랑스),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그리스),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스페인)

등에서 9회 입상 및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인 바리톤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 중 하나인 런던 코벤트가든 극장에서 데뷔했으며, 프랑스 툴루즈 극장, 이탈리아 베로나 필하모닉 극장,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독일 함부르크, 다름슈타트, 하이델베르크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며 그 실력을 입증하였다. 2012년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카르멘>(에스카미요 역)으로 한국 데뷔 후 대구오페라하우스(<카르멘>, <라보엠>, <나비부인>), 광주시립오페라단(<라보엠>), 수지오페라단(<카르멘>), 국립오페라단(<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1945>, <한젤과 그레텔>) 등 국내 오페라단과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남 티엘리아아트센터 초청 독창회, 대구콘서트하우스 초청 독창회를 비롯하여 과천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광주시립오케스트라 등과 호흡을 맞추며 솔리스트로서의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8/2009 시즌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오픈스튜디오(OpenStudio)를 시작해 아우크스부르크 국립극장 주역가수(역임)와 2015/2016 시즌부터는 독일의 최고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도이체 오퍼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약했다. 올해 2021년 3월, 모교인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ORCHESTRA PROFILE



###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5년에 창단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국내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87년부터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오페라·발레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며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러, 바그너를 비롯해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스크랴빈과 본 윌리엄스 등을 연주하며 음악적 내실을 다져오고 있다.

#### 연간 100여 회 연주, 영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음악 저변 확장

연 100여 회 이상의 연주로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는 영화부터 게임, 온라인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클래식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국내 오케스트라 중 첫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과 4K 영상과 3차원 다면 입체 음향 녹음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이야기빙을 통해 새로운 감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미래 세대와의 연결을 통한 클래식의 지속가능성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연주자-작곡-지휘' 세 분야의 미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교육하는 '코리안심포니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작곡가 육성을 위한 '작곡가 아틀리에', 전 세계를 무대로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는 'KSO국제지휘콩쿠르' 등 다세대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클래식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이밖에도 2017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데카를 통해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발매, 그해 미국 브루크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하며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였으며, 세대를 연결하는 동요음반 '고향의 봄'은 레이블 데카로 2021년 2월에 발매됐다. 또한 2015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2016년 프랑스, 2017년 헝가리 등 다수의 해외 초청 연주를 비롯해 2018년 한-태국 수교 60주년, 2019년 한-덴마크 수교 60주년, 한-베트남 수교 26주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단 역할을 다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는 국내 1세대 지휘자 홍연택 음악감독으로부터 '유연과 참신'이란 정신 아래 2대 김민, 3대 박은성, 4대 최희준, 5대 임한정, 6대 정지용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향악의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PROGRAM NOTE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1875년 비제의 신작 <카르멘>이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을 때, 파리의 공연계는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카르멘>은 관객과 평단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 편이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라의 전통을 쥐고 흔드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도발적인 소재는 보수적인 평단에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매력을 스스로 알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카르멘이라는 집시 여인과, 그녀에게 빠져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사실 이런 사랑 이야기는 오페라에서 흔하디흔한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 안주하지 못하고 윤리적 경계의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드는 카르멘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돈 호세의 마음이 비껴나면서 사랑 이야기는 묘한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은 돈 호세가 카르멘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결말로 끝을 맺지요. 집시들은 유럽을 떠돌면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속했습니다. 마땅한 집도 없었고, 범주에 연루되는 일도 많았죠. 게다가 이들의 음악은 어땠나요? 그것은 분명 유럽인들의 귀에는 '이국적인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콘서트홀이나 오페라극장처럼 사회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소리가 아닌, 길거리의 부랑자들이 만드는 '낯선 소리'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한 '낯설음'은 때로 사회 안정에 반대되는 소리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특히나 집시들이 사회 질서를 흐트러트리려고, 악탈, 소매치기,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그들의 음악 역시 유럽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새롭고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카르멘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렇지요. 작곡가 비제는 특이하게도 이 작품의 여주인공 카르멘 역할을 메조소프라노에게 맡겼습니다.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는 항상 고음역대의 소프라노가 불렀던 관습을 생각해본다면, 메조소프라노의 두터운 소리, 그리고 어두운 질감을 통해 작곡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은 이제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고, 돈 호세처럼 자신의 삶도 버리고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여성. 우리는 그들을 '팜 파탈'(femme fatale), 즉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오페라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모순적이게도 카르멘입니다. 19세기 후반, 오페라에는 이렇게 사회 하층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페라 <카르멘>의 수위는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카르멘의 캐릭터는 사회의 관습에 도전하는 아웃사이더 캐릭터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잠재웠던 것은 바로 비제의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 오페라에서 등장하는 집시 음악들은 모두 낯선 그대로의 집시 음악이 아닌, 적절하게 '가공된' 집시 음악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에 등장하는 모든 음악들은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합니다. 이 음악들은 오페라에 내재한 폭력성을 교묘하게 덮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카르멘에게 동요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 1막

우리에게 '하비네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카르멘의 아리아 '사랑은 자유로운 새'는 카르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사랑은 길들일 수가 없는 들새 같다'는 이 노래는 결국 그녀가 여는 한 남자에게 얽매고 싶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이 노래를 듣고 카르멘의 매력에 흠뻑 빠져지게 되는 것은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 호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미카엘라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카르멘과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 PROGRAM NOTE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정숙한 여성', 그녀가 바로 마카엘라입니다. 호세와 마카엘라는 이중창, '내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오'를 노래합니다. 그사이 카르멘은 사고를 칩니다.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의 얼굴에 칼로 상처를 냅니다. 그녀를 체포하는 임무가 군인인 호세에게 주어집니다.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카르멘은 '세비아 성벽 근처에'를 부르면서 호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박자의 빠른 스페인 리듬인 세기디아 카르멘이 집시 여인임을 강조해주는 음악적 요소로 등장합니다. 결국 호세는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풀어주고, 그대가로 두 달간의 영창형을 받게 됩니다.

### 2막

2막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2막에서는 집시 음악으로 가득한, 한바탕 떠들썩한 술잔치가 벌어집니다. 먼저 카르멘이 '집시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흠모하던 남성 중 하나인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면서 '투우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영창에서 석방된 호세가 등장합니다. 자신을 풀어준 대가로 카르멘은 그를 위해 '이제 상으로 당신과 춤을 추겠소'를 부르지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군인 신분인 호세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하지요. 카르멘은 이런 호세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자 호세는 카르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꽃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세의 노래는 카르멘의 마음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이제 카르멘은 호세에게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군대를 버리고, 그의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오, 그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를 들으면서 호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삶과 사랑의 경계에서 그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결국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 3막

결국 탈영병 신세로 전락해서 밀수꾼들과 도망을 다니게 되는 카르멘과 호세. 불행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카르멘은 호세에게 실증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의 약혼자인 마카엘라가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가 밀수꾼들의 은신처로군... 나는 두렵지 않아요'를 부릅니다. 호세는 복잡한 심경이었겠지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자신의 연적인 에스카미요가 나타납니다. 그는 호세와 이중창 '내가 에스카미요라오'를 부릅니다. 카르멘과 마카엘라의 설득 끝에 결국 호세는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카르멘을 담고 말이지요. 이 둘은 그렇게 이별합니다.

### 4막

마지막 4막은 세비아의 투우 경기장. 카르멘은 에스카미요와 함께 투우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을 질투어린 시선으로 보다가 호세가 등장하여 카르멘과 함께 마지막 노래 '그건 당신! 그래요 나에요!'를 부릅니다. 호세는 계속해서 카르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지만, 카르멘은 냉정하게 '우리 사랑은 다 끝났다고 선언하지요. 그녀의 단호함에 호세는 이성을 잃고, 호세는 카르멘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글 정이은 음악학자

## NEXT STAGE

### 2021. 7. 8. Thu. 11 A.M.

지휘 김유원 바이올린 김동현 클라리넷 조인혁 연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 김상진

차이콥스키 |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플로네이즈'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코플란드 |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콥스키 |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 2021. 8. 19. Thu. 11 A.M.

지휘 지중배 피아노 서형민 연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 김상진

뒤카 | 마법사의 제자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프로코피예프 | 피터와 늑대

\* 상기 출연자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RODUCTION STAFF

사장 유인택 예술본부장 박상훈

음악사업부장 송성완 기획 김재연 김경민 박은정

음악사업부 김지영 김희선 신선화 고명진 이재현 남유리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하우스매니저 반민경

무대운영부장 윤대성 무대감독 이기빈 소홍석 조명 황인훈 음향 조민제 광동열

편집디자인 이민지 사진 김영선



#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2021 SAC ARTIST LOUNGE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7:30 p.m. IBK Chamber Hall, Seoul Arts Center

이 음악회는 예술의전당이 기획·제작합니다. 예술의전당

# 6.25전쟁 71주년 기념 음악회 평화 콘서트



지휘 여자경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김기훈

하모니카 박종성



연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사진작가 라미 현

2021. 6. 24 Thu 7:3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예술의전당 한겨레 후원 국가보훈처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문의 및 예매 예술의전당 02-580-1300 www.sac.or.kr

PROJECT SOLDIER 'Project Soldier KWW (Korean War Veteran)' 참전용사 사진 작품들과 함께 합니다.





## 콘서트홀 객석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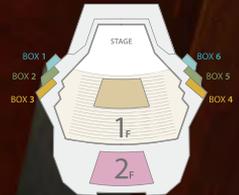
CONCERT HALL NAMING DONATION

콘서트홀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 기부금액

1층 좌석당	500 만원	■
2층 좌석당	300 만원	■
BOX 1 / BOX 6	각 6,000 만원	■
BOX 2 / BOX 5	각 8,000 만원	■
BOX 3 / BOX 4	각 1 억원	■



## 콘서트홀 객석기부자 명단

2021. 6. 1. 기준 / 명단은 가나다 순이며,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 기부자는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후원회원 기부자

(의석수)	(기부자)
40석	권오춘
28석	익명 후원회원
14석	유중근
7석	김영호 김지은
6석	(주)밀레 박선주
5석	강희철 권기찬
4석	문채수 박성희 박영주 박혜성 배동진 서병기
3석	김철주 정문기 천석규
2석	(주)강능 구자관 김일근 김재정 김재학 (주)대일건설 박용현 박인철 신영애 신필열 양동훈 예스24(주) 예주희 윤의숙 이상완 이세웅 이창주 정승일 주원석
1석	김갑우 김명숙 김병운 김상래 김영수 김영진 김용원 김정실 김철종 김태우 나천수 문누미 민홍식 박한용 서민석 석세일 양수화 윤홍근 조인경 최광준

### 일반회원 기부자

6석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5석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4석	조재혁
2석	(주)삼성토탈 장목상 최창화 한기성
1석	강종모 김경숙 김규연 김대진 김동순 김동훈 김선욱 김 원 김주환 김지은 김현리 김희근 (주)투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모철민 (주)문화방송 박용만 박은주 배강업 (주)세아홀딩스 손열음 송관률 (주)신세계 신수정 신정택 양성원 오재원 유소연 유채훈관 윤동진 이경숙 이세창 이소영 이정수 이혜선 이효진 장덕호 정연희 정필희 정혜진 조미엘 조성호 진양래 최민규 최성훈 최은화 (주)크레디아 한상일 함신익과 심포니 송 허승연